

전용 단말기로 시장 공략한다

양질의 콘텐츠 개발 뒤따라야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 전자책 시장은 바로북 닷컴, 와이즈북, 에버북닷컴 등 전자책 전문 서비스 업체가 출현하고 이키온, 한국전자북 등 전자책 전용 단말기 개발업체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출판사들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전자책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와 함께 전자책이 종이책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확대가 아니라 출판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올 3월 전용 단말기 출시할 계획

전문가들은 전자책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휴대용 단말기 개발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한 전자책 단말기의 보급 정도와 개발 수준에 따라 전자책의 승패가 판가름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전자책은 현재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와 전용 단말기가 시장진입을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전용 단말기의 우세를 점치고 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셀빅이나 팜 같은 PDA는 전자책 전용 단말기에 비해 스크린의 크기가 작다. 또한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만 책을 읽을 수 있어 편집 기능 등에서 제약이 많다. 현재로서는 북마크를 할 수 있고, 밑줄을 그을 수 있는 전용 단말기가 종이책에 가장 근접한 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 소비자들 역시 책이라는 제품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PDA보다 전용 단말기를 선호할 것이다.”

한국전자북 김인중 과장의 말이다. 그는 전자책 단말기의 경우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 외국을 앞서고 있다고 덧붙인다. 또한 무선네트워크 시스템이 자리잡고 IMT 2000이 상용화되면 전자책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업체들은 전용 단말기를 주로 개발하고

전자책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개발이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PDA보다 전자책 전용 단말기가 시장에서 우세할 것이라고 점친다. 양질의 콘텐츠 확보도 전자책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전자책에 적합한 콘텐츠만 개발한다면 전자책 시장은 이른 시간 안에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있다. 이키온과 한국전자북을 비롯해 10여개에 이르는 단말기 개발 업체들은 현재 개발을 끝내고 오는 3월,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들 업체들이 출시하는 단말기는 대부분 5.6인치에서 6인치에 이르는 LCD 화면에 16메가바이트의 메모리 용량을 갖추고 있다. 이는 300쪽 분량의 소설 60여권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다. 배터리는 일반 건전지와 리튬 이온 충전 배터리를 사용하는 데, 연속 사용시간은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다.

이들 업체들이 전자책에 탑재한 부가기능도 다양하다. MP3 기능을 추가해 책을 읽으며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제품도 있고, 편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제품도 있다. 웹브라우저를 장착한 제품도 있다. 또한 대부분의 제품들은 전자수첩 기능과 메모장 기능, 스케줄 관리 기능을 갖추고 있다.

전자책에서 단말기 못지 않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콘텐츠다. 북토피아의 이동범 과장은 양질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제공돼야 전자책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전자책 콘텐츠는 개발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전자책의 멀티미디어적 요소를 심분 활용한다면 어린이책과 학습교재 등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는 출판업체와 인프라 역할을 맡고 있는 기술업체 사이에 유기적으로 제휴해야 한다.”

그는 또 현재의 빈약한 e-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전자책은 다른 콘텐츠보다 유료화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인다. 또한 전자책의 특성을 적절하

게 구현한 콘텐츠와 포맷의 표준화, 그리고 기능이 뛰어난 단말기 등이 맞물리면 전자책 시장이 이른 시간 안에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콘텐츠 확보가 최우선 과제

김영사 박은주 대표는 “국내의 콘텐츠 개발 수준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말하면서, 전자책이 단순히 오프라인상의 콘텐츠를 디지털화해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전자책은 PDA나 전용 단말기 등을 통해 이용자가 종이책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 편리하게 책을 읽을 수 있게 하고, 각종 부가기능을 통해 콘텐츠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단말기의 가독성이 증대되고 표준안 문체가 해결되는 2~3년 후면 전자책 시장 규모는 점차 확대될 것이다.”

성균관대 황대준 교수(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는 전자책이 기존 종이책의 지식 재생산 주기를 획기적으로 갱신할 수 있다고 말한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다. 모든 정보들이 ‘빛의 속도’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종이책의 경우, 교재를 출판하려면 최소한 6개월의 시간이 걸리지만 전자책은 이 기간을 몇주로 앞당길 수 있다.”

황교수는 전자책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너무 단말기 쪽으로만 쏠려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장 주도권은 원천 콘텐츠를 먼저 확보하는 쪽이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최갑수 기자